

##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자 교정집단상담이 가해자의 폭력행동,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강 은 희 이 현 림<sup>†</sup>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며,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 방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이 가해자의 폭력행동,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와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집단상담이 개인상담에 비해 효과적인지 검증하려는 것이다. 대상자는 P시의 법원으로부터 상담위탁 4개월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를 실험집단, 비교집단 및 통제집단에 각각 12명을 배정하였다. 실험집단에는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을, 비교집단에는 가정폭력 행위자 개인상담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실험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 비교집단 및 통제집단을 각각 폭력행동, 공격성, 자아존중감척도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의 윤리적인 문제로 통제집단은 사후검사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연구결과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은 가해자의 폭력행동, 공격성 수준의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었으며, 폭력행동과 공격성 수준을 감소시키는데 개인상담보다 효과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을 하는 상담소에서는 개인상담과 더불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주요어 :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 폭력행동, 공격성, 자아존중감

<sup>†</sup> 교신저자 : 이현림,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Tel : 053-810-3120, E-mail : hrlee@yu.ac.kr

우리 사회는 조직 폭력이나 학교 폭력 등의 사회적 폭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왔으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뿌리 깊은 가부장적 관념 하에서 가정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도 이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굳이 개입하지 않으려는 입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가 가정폭력 사실을 감추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 그 동안 가정폭력 문제는 많은 부분이 은폐, 축소되어 사회의 주요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에 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전체 가족 구성원의 정신적 안정성을 해침으로 제 2의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확산을 근거로 1997년 7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을 근절,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

기존의 가정폭력 연구는 주로 상담소나 보호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성으로 정신적, 성격적, 정서적, 행동적인 측면에서 자세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을 진행해 왔다. 오늘날 가정폭력 여성을 위한 지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의료적, 법률적, 심리적 지원이다. 의료적 지원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피해가족은 상담소나 경찰서에서 가정폭력 피해치료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국의 각 국립의료원에 제출하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법률적 서비스로는 가

정폭력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 되므로 상담소의 가정폭력 상담확인서를 제출하면, 무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도망쳐 나온 경우 마땅히 갈 곳이 없는 피해자 여성을 위해서 쉼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곳을 3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6개월까지 머물 수 있다. 심리적 지원으로는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역시 국립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법률의 제정과 사회적 개입은 가정폭력 근절 및 감소를 위해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줄지 않고 계속 늘어 왔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발생율을 보면 1998년에는 3,687건, 1999년은 11,850건, 2000년은 12,983건, 2001년은 14,585건, 2002년은 15,151건, 2003년은 16,408건 2004년은 13,770건 2005년에는 11,595건 이었다. 이는 1998년 3,687건 이었던 것이 2005년 11,595건으로 7년 동안 약 2배로 증가한 것이다(경찰청, 2006). 여성가족부가 성인 남녀 6,000명에게 실시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지난 1년간 발생한 부부 폭력율은 44.6%이며, 결혼 후 현재까지 발생한 부부 폭력율은 53.6%로 나타났다. 부부 폭력에 대한 연구(김재엽, 1998)에 의하면,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5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한국가정의 부부폭력 발생은 31.4%이며, 이중 남편에 의한 아내 폭행은 27.9%이고 아내에 의한 남편 폭행은 15.8%이지만 상호폭력을 제외했을 때는 아내 폭행이 15.6%, 남편 폭행이 3.5%로 남편에 의한 아내의 폭행율이 아내에 의한 남편 폭행 보다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심각한 폭행으로 분류되는 상대를 발로 차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폭행의 경우에도 아내 폭행율이 남편에 비해서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실태를 가늠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발생율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 일본, 홍콩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나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김재엽, 2000).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적 개입은 1998년 7월 가정폭력에 관한 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6년 4월에는 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가정폭력법은 일반 형사 처벌과 달리 피해자에게는 보호법을, 행위자에게는 가정회복에 중점을 둔 보호처분을 적용하였다. 보호처분은 수감명령, 사회봉사, 상담명령, 보호관찰 등으로 이루어 졌다(장희숙·김예성, 2004). 여성가족부는 2005년에는 복권기금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프로그램과 행위자 교정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오면서 그 효과성의 검증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의 특성 중 높은 공격성과 낮은 자존감을 들 수 있다.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은 남녀 모두에게 있어 배우자 폭력행동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드러났다(Steinmentz, 1987). 또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의 거절에 민감하고, 상대의 부정적인 반응에 쉽게 공격적이 된다고 한다(Maiuro, Vitaliano, & Chan, 1987).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선행연구들(윤경자·최규련, 1999; 이서원, 2003; 장희숙·김예성, 2004; 최선령, 2001)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인지행동, 여

성주의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효과성 연구들은 지금까지 인지행동, 여성주의 모형이 폭력행동 교정에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과 폭력에 대한 행위자의 가부장적 사고와 태도를 변화시키고, 기술훈련을 통해서 폭력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처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폭력은 재학습을 통해 교정되며, 폭력행동 자체가 표적이 되어야 하고, 폭력의 책임은 전적으로 행위자에게 있다는 전제를 갖는다. 여기에서는 인지행동 모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지적 재구조화, 이완훈련, 감정인식, 분노통제, 갈등해결 기술, 의사소통 기술, 인지 및 행동시연, 과제물 기법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프로그램을 복권기금으로 전국의 각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진행이 된 지 4년이 경과되었다. 가정폭력상담에서는 집단상담을 하는 곳과 개인상담을 하는 곳 또는 병행하는 곳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가정폭력 행위자에 관련된 연구를 개관하고 이들을 교정하기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소개한 후, 집단상담과 개인상담의 효과 차이를 검증하며,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자 교정집단상담이 가해자의 폭력행동,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가설을 살펴보면 첫째,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폭력행동 수준은 비교집단이나 통제집단보다 낮아질 것이다. 둘째,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공격성 수준은 비교집단이나 통제집단보다 낮아질 것이다. 셋째,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은 비교집단이나 통제집단보다 향상될 것이다.

## 가정폭력 행위자 관련 연구

###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정폭력의 행위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령, 학력, 직업, 소득 등을 변수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방법상의 차이 등으로 일관된 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먼저 가정폭력과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나이는 층에 비해 젊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신체적 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연구(김재엽, 1998)가 있는 반면, 폭력과 연령은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김갑숙, 1991; 김병수, 1999; 정복희, 1993)도 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전국 보호관찰소 및 상담위탁 기관에 의뢰된 총 336명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의 연령분포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위자의 분포는 1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10대에서 20대 4.2%, 30대 26.2%, 40대 49.4%, 50대 15.5%, 60대에서 70대가 3.6%, 무응답이 1.2%로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04).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가정폭력과 학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교육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김득성·김정옥·송정아, 2000; 박경규, 1994).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신체적 학대를 더 자주 사용한다는 연구(김광일, 1998)도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가정폭력과 직업 및 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편의 지위가 아내보다 낮을 때 폭력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으며, 이는 저소득층 남성들이 아내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력을 하나의 자원으로 이용하

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Steinmetz & Straus, 1974). Steinmetz(1987)는 소득이 높아지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이 발생할 조건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의 연구 결과(김경화, 1986; 박경규, 1994)로는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폭력과 소득 수준은 무관하며, 생산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다른 직업을 가진 남성보다 더 폭력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김재엽, 1998).

### 가정폭력 행위자의 특성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은 1960년대에 이르러 가정이 자녀들에게 폭력의 학습장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서서히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여성단체가 아내학대 문제를 쟁점화하며 국가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여성단체의 노력의 결과로 1988년부터 가정폭력법이 시행되었다. 가정폭력법의 시행으로 행위자가 증가하자 가정폭력의 원인이 되는 행위자를 변화시키면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인식하에 행위자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가정폭력 행위자에 관한 연구는 행위자들이 가정폭력을 하게 되는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아내폭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미시적-거시적, 개인-관계의 다차원적으로 접근한 통합적 방법을 사용하여 가정폭력을 하게 되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가정폭력의 경로를 아내의 무시와 남편의 낮은 자존감, 평등의식의 부족, 높은 스트레스는 부부 간의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남편의 공격성을 자극하여 폭력

을 유발하는 경로임을 밝혔다(김지영, 2003).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연구(정희숙·정정호·김예성·변현주, 2003)에서 구체적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동, 분노, 자존감, 자녀양육태도, 갈등해결 기술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어 줄 것을 주장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아내 폭행의 성격적 변인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루어졌다. 가정폭력 행위자들의 연구에서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낮은 자존감을 나타내고 있다(Goldstein & Rosenbaum, 1985).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망과 그것에 대한 공포를 동시에 느끼며, 그들의 배우자가 자율적인 것에 대해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고 하였다(Murphy, Meyer, & O'Leary, 1994).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기 쉬운데, 이런 남편들은 아내가 자기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끼고 이러한 위협이 표출되면 아내를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Goldstein & Rosenbaum, 1985).

자존감이 낮은 남성들은 우울, 질투의 특성을 보이고, 남의 비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사람은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고, 상처와 두려움에 쉽게 분노로 바뀌며 공격행동을 표출하게 된다고 보았다(Saunders, 1984). Saunders는 남자들이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아내의 행동을 그들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아내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생각하면 분노가 촉발된다고 보았다. 즉, 가해자들은 아내의 행동을 자신의 자존감을 손상하는 것으로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힘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남자는 아내가 자신보다

능력이나 지위가 능가하는 것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폭력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Eisikovits(1991)는 남편들의 아내학대 행동은 남편 자신의 인지 자체의 문제이거나 혹은 아내의 행동 자체보다는 아내의 행동과 남편의 잘못된 지각이 복합되거나하여 구타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남자들의 구타 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비합리적 사고 형태와 결합되면 신체적 폭력이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공격성에 있어 행위자들이 비폭력 집단보다 더 공격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Maiuro, Vitaliano, & Chan, 1987). 반면에 가정폭력 행위자의 공격 수준이 결혼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남성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위자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갈등과 불안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불안이 공격성으로 분류되었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Dutton, 1988). 그러므로 행위자의 공격성을 긍정적으로 방출시키기 위해서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감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폭력행동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화가 나면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행위자의 신념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이순심, 2006).

여성주의 관점에서 공격성을 보면, 폭력행위자들과 일반 남성들은 모두 어느 정도 여성폭력의 정당성에 관해 사회화된 유사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Dibble와 Straus(1988)의 연구에서는 공격성은 아내 폭력 발생율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폭력적인 남성들은 배우자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융통성 없는 고정관념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즉, 가해자 남편은 아내에게 전통적인 성역할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아내에게 가

사일과 양육을 책임지기를 기대하고 복종하고 추종하기를 원한다. 이들은 또한 아내에게 높은 기대치와 경직된 기대치를 설정하고 아내가 해야 할 일에 관해 자신들만의 기준치를 설정해 놓고 다르게 행동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바로 구타가 시작된다. 그리고 남성 가해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전통적 남성·여성관계에 대한 정형화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강한 남성상을 유지하려 한다. 따라서 비폭력자들 보다 과장된 남성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아내에 대하여 통제적이고 지배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성역할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여성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가해자들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남성들은 자신들의 폭력 행위를 축소 내지는 부인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수치, 당황, 죄의식의 결과로 보이는데, 가해자들 자신들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들의 행동이 상처를 주고 비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적 제재 조치를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축소내지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다른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면 그것을 무시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폭력 문제도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여성들이 맞을 만한 행동을 하니까 때렸다거나 여성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했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상담 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은 가해자들에게 폭력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보라고 요구받으면,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아내한테 있다고 모든 것을 아내의 탓으

로 돌린다. 따라서 폭력에 대한 책임성 수용은 가해자 치료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상담의 성공지수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P시의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보호사건으로 ‘상담위탁 4개월’ 결정을 받은 36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비교집단 및 통제집단에 각각 12명씩 배정하였다. 가정폭력 행위자 36명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40대의 비율이 47.2%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기간에 있어서는 10년에서 20년 사이가 52.8%로 가장 많았다. 월수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미만인 경우가 38.9%로 많이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초혼인 경우가 50%였으며, 이혼을 한 경우는 27.8%, 재혼은 13.9%였다. 학력은 고등학교졸업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회사원이 50.0%, 자영업이 27.8%, 노무직이 22.2% 순으로 나타났다.

###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 프로그램 (표 1)

### 측정 도구

#### 폭력행동 척도

폭력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1979)가 개발하고 1996년에 수정 보완한 CTS II (Conflict Tactic Scale II)이다. CTS는 부부갈등 중 특히 폭력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김재엽·이서원, 1998; 신영화, 1999; 이정숙, 2006). 이 척도는 폭넓게

표 1.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 프로그램

회기	주 제	목 표	활 동	시간(분)
1	초기면접 프로그램 소개	·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에 대한 이해 · 상담 목표를 정하고, 이를 동기화한다.	·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목표를 설정한다. · 상담동의서 작성 ·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120
2	관계형성	· 집단구성원 간의 신뢰감을 발달시킨다.	· 진행자 소개 및 집단일정 안내 · 신체적 활동과 접촉을 통해 집단구성원 간의 신뢰감을 발달시킨다. ·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목표를 위한 집단규칙을 정한다.	120
3	성격검사	· 자신의 타고난 성격을 이해한다.	· 자기이해를 위한 성격 검사(MBTI)를 실시한다.	120
4	가족과 자신의 성격	·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이해하고 가족 간의 성격 차이를 이해 한다.	· 집단원 간의 성격의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 성격 유형별 역할극 · 가족의 성격과 나의 성격 비교해 보기	120
5	폭력의 유형과 일시 중단	· 폭력의 종류와 주기를 이해한다. · 폭력의 일시중단 방법을 습득한다.	· 긴장완화 연습 · 폭력의 종류와 주기의 강의 · 일시중단 방법 탐색	120
6	자기관찰과 통제 계획	· 자신의 폭력 유형을 이해하고 대처 한다.	· 폭력의 경고신호 알아차리기 · 자신의 경고신호에 대해 통제 계획세우기	120
7	폭력의 영향	· 폭력이 아내에게 주는 영향 이해 · 폭력이 자녀에게 주는 영향 이해	· 긴장완화 연습 · 폭력으로 얻은 것, 잃은 것 탐색	120
8	폭력의 책임	· 폭력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이해	· 폭력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기제 탐색 · 폭력책임의 3단계 실습	120
9	ABC 모델	· 폭력의 원인이 상황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음을 이해한다.	· ABC 모델 소개하기 ·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로 바꾸기	120
10	책임 수용 편지쓰기	· 폭력의 책임을 수용한다.	· 긴장완화 연습 · 감정 읽기 연습 · 폭력행동 인정하기 · 책임수용 편지 쓰기	120
11	분노 다스리기	· 분노는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음을 인지한다.	· 분노 다루기 1단계 · 분노 다루기 2단계 · 분노 다루기 3단계	120
12	듣기	· 의사소통에서 듣기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기본 청취기술 익히기 · 듣기 역할연습하기	120
13	말하기	· 내가 한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한다.	· 말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연습하기 · 말하는 방법 '나 전달법'을 연습한다.	120
14	자아상	· 자신을 수용하고 인정한다.	· 자신의 현재의 자아상 탐색하기 · 원하는 자아상 탐색하기	120
15	건강한 관계	· 건강한 관계 이해하기	· 건강한 관계와 건강하지 못한 관계 비교하기 · 나와 아내의 관계 탐색하기	120
16	마무리	· 변화 점검하기 · 비폭력 행동 유지하기	· 소감 나누기 · 비폭력 행동 유지를 위한 계획 세우기	120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 6개월간 발생한 행동 횟수를 7점 Likert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제작되었다. CTS는 갈등관리 행동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척도로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이성적 행동의 세 가지 하위변인을 가지고 있으며, 갈등을 처리하는 행동으로 이성적 행동, 언어적 공격, 경미한 신체적 폭력,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 대해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28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성적 행동은 긍정적인 갈등해결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것이나 역으로 채점하여 CTS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은 .937이고, 언어적 폭력은 .947이고, 이성적 행동은 .854였다. 폭력행동 전체에 대하여 Straus(1979)의 연구 당시 보고한 신뢰도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915로 나타났다.

#### 공격성 척도

행위자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Buss와 Durkee(1957)가 개발한 척도(Aggression Questionnaire Scale: AQS)를 노안녕(1983)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적대감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수는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써, 총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신체적 공격성은 .92, 언어적 공격성은 .91, 적대감 요인은 .94이다. 본 연구의 공격성 전체 신뢰도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 자아존중감 척도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 차원의 척도로 다양한 집단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높은 자존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49이었다.

#### 연구 절차

실험집단에는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주 1회 120분을 16회기 실시하였고, 비교집단에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개인상담을 주 1회 50분씩 16회기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폭력행동,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 척도로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은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으로 상담위탁 결정을 4개월 받은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의 모든 자료는 SPS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다. 둘째, 실험 후 세 집단의 사전과 사후검사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집단 간 평균 차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한 공변량분석(ANCOVA)을 하였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사후검증(Bonferroni)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폭력행동에 미치는 효과

첫째,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이 가해자의 폭력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비교 및 통제집단에 대한 사전과 사후검사의 하위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해 보면 표 2와 같았다.

둘째, 폭력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 비교 및 통제집단 간의 가해자의 폭력행동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 분석(ANCOVA)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았다. 폭력행동의 각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은 실험집단, 비교집단 및 통제집단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성적 요인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통제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행동 중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감소시키는 데는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과 개인상담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나, 집단상담이 개인상담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적 요인에 있어서는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상담과 개인상담이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며, 집단상담과 개인상담 간의 차이는 없었음을 의미한다.

###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첫째, 가정폭력 가해자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비교 및 통제집단의 각 하위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해 보면 표 4와 같았다.

표 2. 폭력행동의 하위영역별 사전·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영역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수정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후평균	표준오차
신체적 폭력	실험	3.58	1.41	1.15	1.20	1.16	0.17
	비교	3.61	1.41	1.60	1.30	2.59	0.17
	통제	3.38	1.36	3.39	1.12	3.40	0.17
언어적 폭력	실험	4.83	1.72	1.57	0.42	1.57	0.20
	비교	4.93	1.72	2.35	0.54	2.32	0.20
	통제	4.58	1.73	4.35	1.42	4.37	0.20
이성적 행동	실험	6.00	0.64	3.00	1.20	2.99	0.28
	비교	5.96	0.66	3.38	1.16	3.39	0.28
	통제	5.80	0.64	5.24	0.52	5.23	0.28
전 체	실험	4.74	0.99	1.87	0.32	1.87	0.14
	비교	4.77	0.97	2.39	0.38	2.40	0.14
	통제	4.52	0.96	4.28	0.78	4.28	0.14

표 3. 폭력행동 수준의 하위영역별 공변량 분석

하위영역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	사후검증 (Bonferroni)
신체	집단	33.81	2	16.9	51.46**	
	공변량	4.65	1	4.65	14.15**	A < B < C
	오차	10.51	32	0.33	.	
언어	집단	50.39	2	25.2	55.05**	
	공변량	12.82	1	12.82	28.01**	A < B < C
	오차	14.65	32	0.46	.	
이성	집단	34.13	2	17.07	18.68**	
	공변량	4.51	1	4.51	4.94*	A, B < C
	오차	29.24	32	0.91	.	
전체	집단	38.66	2	19.33	80.59**	
	공변량	1.7	1	1.7	7.08*	A < B < C
	오차	7.68	32	0.24	.	

\* $p < .05$ , \*\* $p < .01$

A: 실험집단, B: 비교집단, C: 통제집단

표 4. 공격성 수준의 하위영역별 사전·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영역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수정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후평균	표준오차
신체폭력	실험	4.04	0.62	1.74	0.32	1.74	0.10
	비교	4.05	0.62	2.29	0.25	2.29	0.10
	통제	3.83	0.60	3.96	0.51	3.96	0.10
언어폭력	실험	3.85	0.63	1.45	0.24	1.46	0.09
	비교	3.87	0.58	2.14	0.30	2.14	0.09
	통제	3.66	0.62	3.81	0.48	3.81	0.09
적대감	실험	3.77	0.53	1.72	0.29	1.72	0.09
	비교	3.78	0.56	2.18	0.32	2.17	0.09
	통제	3.57	0.53	3.85	0.61	3.86	0.09
전체	실험	3.89	0.47	1.87	0.15	1.87	0.06
	비교	3.90	0.46	2.38	0.25	2.38	0.06
	통제	3.69	0.46	3.89	0.47	3.89	0.06

둘째,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 비교 및 통제집단 간의 가해자의 공격성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 분석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신체적 공격성과 적대감이 실험, 비교 및 통제집단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공격성과 적대감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데는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과 개인상담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며, 집단상담이 개인상담보다 효과적임을 의미하였다. 언어적 공격성에 있어서는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과 개인상담이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며 집단상담과 개인상담 간의 차이는 없었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첫째, 가정폭력 행위자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비교 및 통제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해 보면 표 6과 같았다.

둘째,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 비교 및 통제집단 간의 가해자의 자아존중감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 분석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7과 같았다. 자아존중감 수준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통제집단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는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과 개인상담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며, 집단상담과 개인상담 간은 효과의 차이가 없었

표 5. 공격성 수준의 하위영역별 공변량 분석

하위 영역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	사후검증 (Bonferroni)
신체	집단	32.12	2	16.06	127.98**	A < B < C
	공변량	0.68	1	0.68	5.39*	
	오차	4.02	32	0.13	.	
언어	집단	35.18	2	17.59	179.11**	A, B < C
	공변량	1.07	1	1.07	10.87**	
	오차	3.14	32	0.1	.	
적대감	집단	30.39	2	15.19	164.74**	A < B < C
	공변량	3.19	1	3.19	34.55**	
	오차	2.95	32	0.09	.	
전 체	집단	26.45	2	13.23	257.3**	A < B < C
	공변량	1.71	1	1.71	33.34**	
	오차	1.64	32	0.05	.	

\*p<.05, \*\*p<.01

A: 실험집단, B: 비교집단, C: 통제집단

표 6. 자아존중감 수준의 사전·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인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수정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후평균	표준오차
자아존중감	실험	3.38	0.73	4.16	0.27	4.15	0.13
	비교	3.35	0.68	4.07	0.28	4.09	0.13
	통제	3.32	0.67	3.39	0.43	3.42	0.13

표 7. 자아존중감의 공변량 분석

변 인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	사후검증 (Bonferroni)
자아존중감	집단	3.09	2	1.55	7.61**	
	공변량	1.35	1	1.35	6.67**	A, B > C
	오차	6.5	32	0.2	.	

\* $p < .05$ , \*\* $p < .01$

A: 실험집단, B: 비교집단, C: 통제집단

음을 의미한다.

### 논 의

연구결과를 연구가설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 비교 및 통제집단의 변화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폭력행동 전체 척도에서는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과 통제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폭력행동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폭력행동 수준은 비교집단과 통제집단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 1은 수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폭력 행동을 의미 있게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개인상담보다 집단상담이 유의하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력행동의 하위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의 경우에 실험집단이 비교집단과 통제집단보다 폭력행동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행동에 있어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통제집단과의 차이를 보였으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집단상담이 개인상담보다 가정폭력 행위자의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더 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성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의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폭력 행위자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동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이서원, 2003; 최선령, 2001; 신나래, 2004; Faulkner, et al., 1992)들을 지지 해 주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 프로그램이 폭력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이정숙, 2006)에서 행위자의 폭력행동이 재발 되는 것이 감소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음을 지지해 주고 있다. 박경애(2005)의 경우에도 역시 가정폭력 행위자 폭력행위 방지를 위한 교정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14쌍 중 9쌍의 아내가 가정폭력 교정프로그램을 경험한 후 남편의 폭력행동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폭력 프로그램을 경험한 후에 신체적 폭력은 재발하지 않았으나, 남편의 심리적 폭력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장희숙, 1999)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둘째,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이 가해자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비교 및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공격성 전체 척도에서 실험집단의 공격성 수준은 비교집단과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비교집단과 통제집단보다 공격성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 2는 수용되었다.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을 실시한 집단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나타났을 뿐 아니라 개인상담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격성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 그리고 적대감 모두 실험집단이 비교집단과 통제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 그리고

적대감을 감소시키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효과가 있으며, 개인상담보다 집단상담이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Gondolf(1988)의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의 성격적 변인으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공격성이므로 가정폭력 행위자 프로그램에서 공격성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Maiuro, Vitaliano와 Cahn(1987)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공격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공격성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 역시 가정폭력 행위자 프로그램에 공격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 공격성 요인이 중요하다는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상담이 폭력인식, 분노 관리, 타인 배려가 향상되었음을 밝힌 연구결과(윤경자·최규련, 1999; 공미혜, 2001; 김경신·김정란, 2000; 이서원, 2003)들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셋째,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가해자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통제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아존중감 수준이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은 비교집단과 통제집단보다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 3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집단상담과 개인상담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으며, 집단상담과 개인상담의 효과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폭력의 원인이나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행위자에게 있다는 연구결과(Hotaling & Sugarman, 1986)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폭력남성의 특성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필

요가 있으며, 그 특성 중 자아존중감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장희숙과 김예성(2004)의 연구에서도 가해자들의 자아존중감이 일반남성들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이순심(2006)의 연구에서도 낮은 자아존중감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김경신·김정란, 2002; 권진숙·전석균, 2001; 박경애, 2005)를 지지하였다. 집단상담과 개인상담의 효과에 대해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프로그램은 집단상담 접근법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장희숙·김예성, 2004). 개인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1대 1관계에서 행위자의 수치심, 고립 등을 다루기 어렵고 자칫 심리적인 현상에만 치중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집단상담은 집단 피드백, 대인관계 기술 습득 및 연습을 제공하며, 나아가 집단성원들의 직면, 강화, 지지 등은 폭력행동 교정에 강력한 촉매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 남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론을 살펴보면, 첫째, 가정폭력 가해자들에게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을 실시함으로써 폭력행동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폭력행동 감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집단상담의 방법이 개인상담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 대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도 중요하지만, 가정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가정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진행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중요하게 다루는 사회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본다.

둘째, 가정폭력 가해자들에게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을 실시함으로써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집단상담이 개인상담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감정에서 행동까지 스스로 조절해 나가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가해자 스스로 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집단상담이 효과적인 것은 개인상담은 동기를 형성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반면, 집단상담에서는 같은 처지의 사람이 모여 상담을 받기 때문에 동기를 형성하기 쉽고, 집단원의 폭력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같은 처지의 집단원 간의 피드백을 수용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폭력행동과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집단상담이 개인상담에 비해 효과적인 결과는 장희숙 외(2006)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행위자 프로그램은 개인상담, 부부상담, 집단상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집단상담에서 효과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장희숙의 연구에서 집단상담이 효과적인 이유로 가정폭력 행위자 프로그램이 집단을 통해서는 행위자의 폭력과 책임에 대한 태도의 변화, 자기관찰을 통한 자기통제, 대안적인 비폭력 행동을 학습하고 습득하여 폭력을 멈추게 하는데 많은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들고 있다.

셋째, 가정폭력 가해자들에게 가정폭력 행

위자 교정집단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폭력행동과 공격성의 감소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의 학습으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폭력행동을 인정하고 폭력이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어 나감으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제언을 하면 첫째,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집단상담이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동과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집단상담이 개인상담보다 좀더 효과가 있었으므로,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을 하는 상담소에서는 개인상담과 함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가정폭력 행위자를 여성을 제외한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가정폭력 행위자로 상담위탁 받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연구대상의 확보가 어려워 제외되었다. 따라서 추후에는 여성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상담위탁 명령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상담결과를 법원으로 보고해야 되므로, 가해자들은 사전검사에서 경찰에 신고한 배우자에 대한 원망, 억울함으로 부정적인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사후검사에서 평가결과로 인하여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긍정적인 대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각 보호관찰소와 상담소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집단상담과 개인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집단상담과 개인상담의 효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공미혜 (2001).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테러리즘으로서의 아내구타, 가족학논문집, 9, 1-20.
- 권진숙, 전석균 (2001).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44(3), 36-63.
- 경찰청 (2006) 경찰 백서. 서울: 경찰청.
- 김갑숙 (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신, 김정란 (2000). 가정폭력의 실태 및 상담기관 현황분석을 통한 지역상담사업 체계화 방안.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111-134.
- 김경화 (1986). 아내학대의 영향변인에 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일 (1998).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서울: 탐구당.
- 김득성, 김정옥, 송정아 (2000). 부부의사소통 유형과 부부폭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16.
- 김병수 (1999).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아내학대의 인식과 경험.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2003). 아내폭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통합모형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엽 (1998). 한국인의 스트레스와 가족폭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0(2), 115-140.
- 김재엽 (2000). 한국인의 가정폭력 실태와 현

- 상. 가정폭력대응전략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 김재엽, 이서원 (1998). 저소득층의 아내구타 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0(1), 107-134.
- 노안녕 (1983). 비행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 감소에 미치는 주장훈련의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규 (1994). 기혼남성의 스트레스와 폭력과의 인과관계. 효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경애 (2005).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위 방지를 위한 교정프로그램의 효과. 대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나래 (2004). 가정폭력특례법상 보호처분 대상자의 성장기 폭력경험과 성역할태도가 아내 학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영화 (1999). 학대받는 아내의 능력 고취를 위한 집단사회사업 실천의 효과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경자, 최규련 (1999). 부부폭력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 자료집*, 45-62.
- 이서원 (2003).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04). 여성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이순심 (2006).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2006). 가정폭력 행위자 프로그램이 재폭력 방지에 미치는 현황에 관한 효과성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희숙 (1999). 아내구타 가해자 집단의 탈락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4, 265-293.
- 장희숙, 정정호, 김예성, 변현주 (2003). 가정폭력행위자 치료 프로그램. 서울: 여성가족부.
- 장희숙, 김예성 (2004). 가정폭력행위자의 유형. *한국사회복지학*, 56(3), 303-325.
- 정복희 (1993). 아내학대가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선령 (2001). 한국아내학대자의 학대행동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모델 적용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uss, A. H., & Durkee, A.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linical and Consulting Psychology*, 21, 343-349.
- Dibble, U. G., & Straus, M. A. (1988, February). Some social structures determinants of inconsistency between attitude and behavior: The case of family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71-80.
- Dutton, D. G. (1988). *The abusive personality*. New York: Guilford.
- Eisikovits, Z., C. (1991). *Relationship adjustment, conflict, and social support in women battering*.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Holtling, G., & Sugarman, D. (1986). An analysis of risk makes in husband to wife violence: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Violence and Victims*, 1, 101-124.
- Faulkner, K., & Stoltenberg, C., Cogen, R., & Nolder, M., & Shooter, E. (1992).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for male spouse abusers. *Journal of Family Violence*, 7, 37-55.
- Goldstein, D., & Rosenbaum, A. (1985). An evaluation of the self-esteem of maritally violent men. *Family Relations*, 34, 155-178.



- Gondolf, E. W. (1988). 췌 are those guys? Toward a behavioral typology of men who batter. *Violence and Victims*, 3, 187-203.
- Maiuro, R. D., Vitaliano, P. P., & Chan, T. S. (1987). A brief measure for the assessment of anger and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 166-178.
- Murphy, C., Meyer, S. L., & O'Leary, K. (1994). Dependence of partner assaultitv m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729-73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under, D. G. (1984). Helping who batter. *Social Casework*, 65(6), 347-355.
- Straus, M. A. (1979, February).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5-88.
- Steinmentz, S. K. (1987). Family violence: Past, present, and future. In M. B. Sussman, & S. K. Steinmentz(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pp. 725-765), New York: Plenum.
- Steinmentz, S. K., & Straus, M. A. (1974). *Violence in the family*. New York: Harper & Row.
- 1 차원고접수 : 2008. 5. 9.  
심사통과접수 : 2008. 6. 3.  
최종원고접수 : 2008. 6. 10.

## **The Effect of Family Violence Correction Group Counseling on Violence Act, Agg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Family Violence Injurers**

**Eun Hee Kang**

**Hyun Rim Lee**

Ye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family violence correction group counseling on violence act, aggression, and self esteem of the family violence injur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mposed of 36 men who were decided 'counsel decision' from judge. They were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12 men, comparative group 12 men and control group 12 men. This study design was a pre-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The family violence injurer correction group counseling was carried out with the experimental group. The family violence injurer correction individual counseling was carried out to the comparative group. The hypothesis and the results for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mental group would b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comparative and control groups on the family violence injurers's violence ac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lower scores than the comparative and control groups on family violence injurer's violence act. Second, the experimental group would b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comparative and control groups on the family violence injurers's aggression. The experimental group indic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lower scores than the comparative and control groups on aggression levels. Third, the experimental group would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a comparative and control groups on the family violence injurers's self esteem. The experimental and comparative group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scores than the control group on the family violence injurers's self-esteem.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family violence batterer group counseling was more effective than individual counseling on family violence injurer's violence act, aggression. However, self esteem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mparative groups.

*Key words : family violence correction group counseling, violence act, aggression, self esteem*